

■ 수확철 농촌 '야생동물과의 전쟁'

호랑이 (똥·눈빛·소리)로 겁주고 잡고 잡아도 피해 속출

멧돼지·꿩·까치 등 야생동물들이 전남도내 농경지를 속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농민들은 호랑이 똥·LED(발광소자)는 물론 사람 머리 카락까지 동원해 야생동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배·채소·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난 2002년 7억1천만원에서 ▲2003년 12억원 ▲2004년 15억원 ▲2005년 19억6천만원 ▲2006년 20억3천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 중에 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수렵허가를 내줘, 지난해에만 멧돼지 등 2만2천여마리를 잡았다. 올해도 ▲멧돼지 152마리 ▲고라니 11마리 ▲꿩



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호랑이 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효과도 오래가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우치동물원에 사육중인 여섯 마리의 호랑이에게서 나오는 똥은

하지만 멧돼지 등이 호랑이 눈이나 호랑이 울음소리, 사람머리카락 등에 1주일~4개월이면 적응하기 때문에 지금은 쓸모없게 돼 돈만 버린 셈이 됐다.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에 호박고구마를 심은 조모(38)씨는 "고구마 밭이 드는 시기에 멧돼지가 출몰, 산 아래쪽 밭부터 해집어 피해가 크다"며 "사람 냄새가 나 멧돼지가 도망간다는 말을 들어 머리카락을 구해 뿌려놓고 그물을 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울타리를 쳐라"=전남도는 올해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곡성·영암·영광·신안·순천 농지에 철선울타리·전기울타리를 설치했다. 멧돼지가 아예 농경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농경지 250㎡에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200만~300만원이 드는 데다, 이것도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농가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소리·냄새 효과 1주일이면 안통해 전기 철조망 설치 비용 많아 한계

483마리 ▲까치 1천745마리를 포획했다. 구례군은 전문 염사 14명으로 포획팀을 꾸리기까지 했다.

농민들은 하지만 사냥만으로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할 소연하고 있다.

◇호랑이 똥, LED까지 동원=해남, 구례, 강진 등 전남지역 농촌에선 요즘 가을 수확철을 맞아 호랑이 똥, 사람 머리카락 등이 귀한 몹이 됐다. 후각이 발달한 멧돼지가 호랑이나 사람 냄새를 맡으면 도망간다는 속설 때문에 농민들이 너도나도 호랑이 똥 등을 구하기

하루 고작 1kg, 밭 주변에 20kg 정도는 뿌려야 하는데, 냄새도 1주일이면 사라져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남지역 농민들은 고구마 밭을 지키기위해 사람 머리카락을 밭에 뿌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 밤이면 1천200룩스(LUX)의 빛을 내는 '호랑이 눈' LED(발광소자)와 호랑이 울음도 동원하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 대월마을 주민들은 600만원을 들여 마을 야산 2곳에 하루 2차례 호랑이 울음을 내는 녹음기를 설치했다.

전남 시·군 야생동물 피해 지원 조례 제정 안해

강원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를 만들어 해마다 20~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내 시·군 들은 단

한곳도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무안 등 일부 시군들이 뒤늦게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환경부가 이달 중에 발표·시행에 들어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고시'에 ▲국립공원 ▲야생 동물 보호구역 ▲생태계 보존 지역 내 농지보 보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와 그림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양지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 시화(詩畵)가 내걸려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10월 축제의 달'을 앞두고 시내버스 승강장 62개소에 특허를 받은 특수 패널을 이용하여 조태일 시인의 '풀씨' 시화 100여편을 게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년간 부녀자 46명 돈 뺏고 성폭행

'광주 발바리' 잡았다

5년 동안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며 46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일명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청은 30일 이모(38·광주 북구 용봉동)씨를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27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B아파트 A(여·46)씨의 집에 침

입, 홀로 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아파트와 원룸,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46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시가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아파트와 원룸 등을 살펴본 뒤 사전에 범행대상을 물색했으며 발코니 잠금장치가 안 된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와 원룸 등 1~2층만을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범행 현장에 남자가 있을 경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가 하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의류 먼지 제거기로 체모 등을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 박모(38)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광주 D급은방에 장물을 내다 판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29일 동구 대인동 D급은방 앞길에서 잠복하던 중 30분간 격투 끝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 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회천 앞바다 연쇄 살인 용의자 70대 어부 구속

대학생 2명도 살해

보성 회천 앞바다 연쇄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보성경찰청은 여성 관광객 2명을 살해한 오모(70·어부)씨가 남녀 대학생 2명도 살해한 혐의를 잡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보성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지난달 3~5일 회천 앞 바다에서 숨진채 발견된 대학생 김모(21)씨와 추모(여·20)씨도 오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가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구속영장 실효심사에서 "지난 8월31일 주구미를 잡으러 가자며 이들 대학생들을 배에 태우고 나갔는데 김씨가 갑자기 바다에 빠지

자 겁이 나서 추씨를 물에 밀어넣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하지만 오씨가 김씨도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김씨 발목·왼쪽 팔에서 어구(갈고리)로 보이는 흉기에 여러 차례 맞아 뼈가 부서진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9월26일 숨진 채 발견된 안모(여·23·인천시 남동구)씨에 대한 부검에서도 왼쪽 발목에서 비슷한 골절 현상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유사한 흉기로 피해자의 발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배를 타고 나간 뒤 피해자들이 실종된 점 등으로 미뤄 오씨가 김

씨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보성군 회천면 울포항에서 안씨와 추모(여·24·경기도 시흥시)씨를 자신의 어선에 태우고 나간 뒤 살해한 혐의로 오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오씨는 회천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씨를 살해한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뉴코아 순천점 불법시위

노조 간부 4명 사전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뉴코아 순천점 등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박모(42)씨와 사무처장 조모, 조직국장 이모, 홀에버 지부장 윤모씨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319)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청도, 영산, 도림, 대곡
KCC광호, 시스텔, 호성산, 시흥
KCC(주)본드나리 KCC-신리, 대곡, 대곡, 대곡
실리온, 방수, 광학, 타이프

축구골대에 걸린 수리부엉이 구조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축구골대에 걸려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가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야생으로 다시 돌아갔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46분께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 휴양림 운동장에서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축구골대에 그물망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신고.

○출동한 광양소방서 119구조대는 절단기로 그물망을 잘라낸 뒤 부엉이를 구조해 인근 야산으로 돌려보냈다.

○소방서관계자는 "축구골대를 나무로 잘못 알고 날아왔다가 그물에 걸려 발을 지레운 것 같다"고 설명.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주에서 물건을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人生不到聚家界 百歲豈能稱老翁?

구분	상품명	매일 1회당 상품가
KCC-1	[장사/장가계] - 보성도 무림산, 천지산 레저골프	744일 수 548,000
KCC-2	[장사/장가계] - 황산리, 황산리, 황산리	442일 보 599,000
KCC-3	[장사/장가계] - 천지산, 황산리, 황산리	442일 보 599,000